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의 인물형상특징에 대한 분석

허 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 나라 문학의 높이와 발전수준은 주로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에 따라 평가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12페이지)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의 인물형상창조에서 이룩된 성과는 당시 영국문학이 중세의 락후성에서 벗어나 근대적발전으로 나가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것이다.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의 인물형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근대적사회발전에 대한 시대적지향을 평민들의 형상에 구현하고 그들을 긍정적주인공으로 내세우고있는것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17세기에 절대군주제를 수립하고 근로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봉건귀족계급의 통치가 무너지고 신의 《절대적권위》를 리용하여 봉건통치와 봉건적질서를 합리화할뿐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순종을 강요하고 《래세》의 행복에 대한 허황한 감언리설로 그들을 무저항주의와 계급적타협으로 이끌던 종교와 교회의 세력도 심히 약화되였다.

사상과 문화 등 사회생활의 곳곳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정신도덕적으로 지배하고있던 봉건적잔재를 반대하여 18세기 영국에서는 《리성》과 《자유》, 《평등》에 대한 지향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계몽주의사상문화운동이 벌어졌다.

계몽주의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봉건사회를 대신하여 자본주의사회를 세우기 위한 부르주아지의 운동이였던것만큼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에서는 지난 시기 인물형상집단에서 부차적인 형상으로만 간주되던 평민을 내세우고 중심인물로 형상하였다.

13~14세기 《아서》, 《아서의 죽음》, 《호수의 란셀러트》, 《기사 가웨인과 푸른 기사》 등 아서왕과 원탁기사들에 대한 소설작품들과 15세기 토머스 말로리(1410-1471)가 쓴 소설 《아서의 죽음》과 같은 중세소설에서는 봉건왕과 기사들을 비롯한 귀족통치배들과 종교승직자들의 형상창조가 중시되고 그들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였다.

필리프 씨드니(1554-1586)의 《아케이디어》(1581)와 토머스 루트(1558-1625)의 《로젤린드》(1590), 로버트 그린(1558-1592)의 《팬도스토우》와 같은 16세기말~17세기초 문예부흥기 목가소설에서는 당시의 허례허식적이며 위선적인 귀족들의 세계를 그려놓았으며 토머스 내쉬(1567-1601)의 《불행한 여행가 또는 잭크 윌튼의 생애》(1594)와 토머스 딜로우니(1543-1600)의 《뉴베리출신의 잭크》(1597), 《영예로운 직업》(1598)과 같은 통속소설에서는 수공업자와 상인, 노동자들의 직업과 생활을 보여주고있지만 평민들이 시대의 지향을 체현한 대표적인물로는 형상되지 못하였다.

17세기 영국부르주아혁명시기 봉건통치제도와 통치계급을 옹호해나선 왕당파소속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존 고든(1605-1662)의 소설 《왕의 형상》(1649)과 기괴하고 환상적인 종교적이야기를 담은 토머스 브라운(1605-1682)과 제러미 테일러(1613-1667)와 같은 귀족문인들의 소설들은 물론 반봉건적경향의 대표적작가인 《독립교회파》의 존 바니언(1628-1688)의 소설 《순례여행》(1685)과 《배드먼씨의 일생》(1680)에서도 아직은 평민들이 적극적으로 등장하지 못하였다. 소설에서는 탐욕가, 비겁한자, 무식쟁이, 폭군, 형리 등과 같은 왕권옹호자들의 형상에 대치하여 반봉건적경향의 인물을 형상하였지만 그들의 사회계급적특징이 명백하지 못하며 그들에게서는 평민의 형상이 나타나지 못하였다.

문에부흥기 인문주의문학과 부르조아혁명시기 소설문학에서는 대체로 봉건왕족과 귀족, 종교승직자를 비롯한 특권계급에 속한 인물들이 인물형상집단에서 중심인물로 선정되고 그들의 형상이 전면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에서는 평민의 형상을 내세워 절대군주제가 립헌군주제로 바뀌어지고 부르조아귀족사회가 수립되던 시대의 특징을 형상하였다.

18세기초에 나온 대니얼 디포우(1660-1731)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1719)의 주인공은 중류부르조아출신의 모험가이고 조너선 스위프트(1667-1745)의 소설 《갈리버려행기》(1726)의 주인공은 의사이다. 그리고 18세기 중엽에 나온 새뮤얼 리처드슨(1689-1761)의 소설 《패밀리》(1740)의 녀주인공은 농민출신의 하녀이고 《클러리씨》(1748)에서는 중류부르조아출신의 녀성이 주인공으로 그려지고있다. 헨리 필딩(1707-1754)의 소설 《조지프 앤드류즈》(1742)와 《고아 톰 존즈에 대한 이야기》(1749)의 주인공들은 각각 농민출신의 하인과 고아출신의 시골귀족의 양아들이며 조지 스몰리트(1721-1771)의 소설 《로더리크 랜덤의 모험》(1748)의 주인공은 하녀의 아들이다.

이 작품들에 등장한 인물형상들은 사회적처지로 보아 특권계급도 아니고 사회의 최하층인간들도 아닌 대체로 평민에 속하는 중소부르조아지로서 작품에 등장하는 그밖의 여러 인물들을 련결시키고 끌고나가는 중심인물로 되어있으며 그들의 주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작품이 제기한 주제사상적문제가 해명되고있다.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의 인물형상의 특징은 다음으로 《리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정신도덕적풍모를 그려내고 그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은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자주적인간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그려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물의 정신도덕적풍모를 형상해냄으로써 봉건적충군사상과 종교적환상, 무지와 몽매로 가득찬 중세기적인물형상의 낡은 틀을 마스고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고 실천력있고 지성적이며 문명개화에로 지향하는 근대적인물형상창조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었다.

17세기 영국부르조아혁명시기 존 밀톤은 서사시 《실락원》에서 비록 추상적이고 종교신화적인물이지만 싸탄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절대군주를 반대하고 왕정복고시기 왕당파들의 정치적인압과 억압에도 굴함없이 맞서나서는 반봉건인물의 형상을 창조하여 시대적특징을 예술적으로 재현할수 있었다.

이와 달리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에서는 《리성》을 지향하는 인물로서 봉건적지배와 무지몽매를 반대하는 자유애호적이며 지성적이고 실천력있으며 근면성과 완강성같은 정신도덕적풍모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인물형상을 창조하고 그것을 낡은것을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주로 생활세태나 모험, 기행 등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보여주었다.

소설 《패밀리》(1740)에서는 귀족지주의 유혹과 강권앞에서도 자기의 도덕적순결성을 고수하려고 애쓰는 하녀인 패밀러를, 소설 《조지프 앤드류즈》(1742)에서는 녀귀족지주의 방랑한 행동을 물리치는 하인 조지프를 형상하였다. 그리고 소설 《고아 톰 존즈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양아버지인 시골귀족의 조카의 음흉한 계책을 물리치고 양아버지에 대한 의리심을 지켜가는 고아출신의 청년 고아 톰 존즈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 《클러리씨》에서는 집안사람들이 강요하는 가부장적도덕의 구속을 뿌리치고 자기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집을 뛰쳐나가는 평민녀성인 클러리씨를 형상하였다. 이러한 형상은 모두 봉건사회의 부패한 생활에 물젖어있으며 아무런 실천능력도 없는 귀족들과 대조를 이루는 정신적으

로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성격의 소유자들의 형상이다.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에서 주인공 로빈슨의 형상에 구현되어있는 자유애호적인 정신은 인간을 신의 노예로, 봉건도덕에 철저히 구속된 무골충으로 만들어버리던 반동적인 봉건사상과 도덕, 그리스도교교리에 대한 비판으로 된다. 특히 수십년세월 홀로 무인도에서 살아가면서 먹을것, 입을것, 쓰고살것을 하나하나 애써 마련해가는 평민청년 로빈슨과 그가 로동생활과정에서 보여준 완강성과 근면성, 창발성은 사람들에게 로동이 얼마나 의의 있는가를 교훈적으로 보여주고있다.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의 인물형상의 특징은 다음으로 인물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이 전례없이 강화된것이였다.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에서 창조된 인물형상은 진실성과 생동성에 있어서 그 이전시기의 소설문학에 비하여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세기 영국소설문학에서는 인물형상창조가 주위세계의 사물현상과 밀접한 련관을 이루지 못하였다.

중세기 영국소설문학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지배와 예속이 강화되면서 사람이 신의 창조물의 하나로 간주되고 신의 뜻으로 살며 신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신의 꼭두각시로 전락되었으며 종교신화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추상적인 형상으로 그려졌다. 더우기 꿈이나 환상과 같은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인물형상들이 창조되었으므로 인물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은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토머스 내쉬의 소설 《불행한 려행가, 또는 잭 윌튼의 생애》(1594)와 같은 문예부흥기 인문주의소설문학에서는 인물형상이 지상의 인간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창조되면서 그의 진실성과 생동성이 점차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예부흥기소설 역시 인물들이 사람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 세계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거나 이름 모를 바다가운데 있는 환상적인 환경속에서 형상되다보니 그 진실성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존 바니언의 소설 《순례려행》(1685)과 《배드먼씨의 일생》(1680)과 같은 17세기 반봉건적경향의 진보적소설들에서도 인물들은 공상적인 생활세계에서 형상되었다.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에서도 《갈리버려행기》와 《로더리크 랜덤의 모험》 등과 같이 이름 모를 세계에 대한 려행과 가지가지의 뜻하지 않은 모험들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여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세계와 다른 특수하고 공상적인 생활환경속에서 인물형상이 창조되었다.

그러나 《로빈슨 크루소우》와 《패밀리》, 《고아 톰 존즈에 대한 이야기》 등과 같이 이 시기 대부분의 소설들은 사람들이 늘 보고 대하는 보통의 환경에서 인물들의 형상을 창조하였으며 그로 하여 인물형상이 보다 더 진실해졌다.

18세기 전반기 영국에서는 부르조아사회가 수립되고 봉건귀족들과 그들의 정신도덕적락후성과 부패성, 불합리, 부패무능이 전면에서 드러나면서 봉건사회의 무지몽매를 타파하고 근대적사회발전을 이룩하려는 지향이 강해졌으며 봉건사회로부터 물려받은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과 도덕 즉 《리성》에 기초한 도덕과 신분적차이를 넘어서는 개성의 《자유》가 리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18세기 영국의 구체적인 현실을 생활바탕으로 하여 인물들이 형상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시기 계몽주의소설문학에서 창조된 성격형상들은 진실성이 보다 강해졌다.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에서는 환경과 기물,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강해지고 인물형상창조에서 내면심리에 대한 묘사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새뮤얼 리처드슨은 소설 《패밀리》(1740)와 《클러리씨》(1748)에서 형상창조에 심리묘사를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인물형상창조에서 생동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에는 일련의 제한성이 있다.

제한성은 우선 인물형상이 가지고있는 정신도덕적특질의 사회계급적성격을 옳게 그려내지 못한것이다.

이 시기 소설문학에서는 봉건귀족들을 부정인물로, 평민들을 긍정인물로 설정함으로써 봉건적잔재를 청산하고 근대적발전으로 나가려고 지향하던 신흥부르주아지의 리해관계가 예술적으로 재현되고있다. 그러나 인물형상에 체현되어있는 정신도덕의 긍부정적특질들은 사회계급적관계를 떠난 초계급적인 정신도덕이었다.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의 주인공 로빈슨이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보여준 로동에 대한 근면성과 자연개조에서 보여준 창조성 같은 근로정신은 생활적바탕이 진실하게 그려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사회계급적특성이 살아나지 못하고있다.

소설 《패밀리》의 주인공인 하녀 패밀리가 보여준 도덕적《순결성》은 결국 봉건귀족과의 결혼으로 이어짐으로써 그것이 봉건귀족계급의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된 근로대중의 계급적리해관계를 대변하는것이 아니라 귀족과의 타협으로 투쟁의 막을 내린 영국부르주아지의 리해관계와 사상감정을 보여주는데 그치고있다. 이와 같은 제한성은 《고아 톰존즈에 대한 이야기》와 《조지프 앤드류즈》를 비롯한 많은 소설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있다.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에 그려진 인물형상은 그 대부분이 사회계급적성격을 떠난 《자연적》인간의 형상으로 되었다.

제한성은 또한 인간의 사상감정을 주로 사건줄거리속에서만 그려보여주었을뿐 형상이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지지 못한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성이 있지만 18세기 영국계몽주의소설문학은 중세소설문학의 락후성에서 벗어나 인물형상창조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영국소설문학의 근대적발전을 가져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